

2019 년도 봄학기 국립대만대학교 교환학생 귀국보고서

화학생물공학부 송지석

2019 년 2 월부터 2019 년 6 월말까지 국립대만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대학생 생활 동안 교환학생을 꼭 다녀와 보고 싶었습니다. 수능을 위해서만 영어를 공부했었던 터라, 리딩 능력은 나쁘지 않으나, 영어회화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영어회화 실력을 키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어권 나라는 어학성적 기준이 높아 지원하지 못하였고, 유럽권도 지원했으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 지망인 대만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대만으로 교환학생을 떠나기 전 먼저 걱정이 앞섰습니다. 중국어를 한번도 배워본 적이 없을뿐더러, 대만이라는 나라에 가서 영어회화 실력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을 다녀온 지금, 결과는 대성공입니다. 영어를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고, 이전보다 훨씬 더 영어가 잘 들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어 공부에 대한 흥미도 생겨 앞으로도 계속 중국어를 배워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환학생을 떠나기 전에 준비한 사항과 대만에 도착하여 어떻게 생활했는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지원서, 건강검진, 보험 등 잘 기입해서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은 학교 보건소에서 연 1 회 무료 건강검진 받으시면 됩니다. 서류 들고 가면 간호사, 의사분이 알아서 잘 해줍니다. 저는 대만에서 요구한 건강검진 서류에 대변검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비자와 항공

광화문역 근처에 있는 대만대표부에서 비자 받으시면 됩니다. 한학기 교환학생 하실거면 6 개월 머물 수 있는 방문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수비자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공편은 인천-타오위안공항 라인과, 김포-송산공항 라인이 있습니다. 타오위안은 인천공항, 송산공항은 김포공항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오위안 공항이 송산공항 보다 운행라인도 많고 더 큼니다. 하지만 국립대만대학교가 위치한 공관역은 송산공항에서 더 가깝습니다. 두 공항 모두 지하철로 공관역과 연결되어있어서 학교 기숙사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환전

처음에 쓰실 돈은 한국에서 원화를 미국달러로 바꾸시고, 대만공항에서 미국달러를 대만돈으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한국에서 원화를 대만돈으로 바꾸는 것보다 환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립대만대학교 근처에 씨티은행 ATM 이 있어서 쉽게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씨티은행 카드를 발급해가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nol.ntu.edu.tw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수강신청은 선착순이 아니고 신청을 다 받은 다음 추첨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수강신청에 실패했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학교의 초안지와 비슷하게, 그린페이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수업시간에 가서 교수님에게 그린페이퍼를 받고 여기에 적힌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대체로 잘 주는 편이며 너무 많은 학생이 몰릴 경우 추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환학생이라고 말하면 교수님들이 잘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숙사

교환학생들은 ShuiYuan 기숙사(Prince House)에 배정받으실 것입니다. 1인실과 2인실은 선택할 수 있는데 1인실은 7,400NTD, 2인실은 5,000NTD 정도입니다. 내년부터는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기숙사에 입주할 때 고장난 것이나 블라인드에 곰팡이가 있다면 1층 desk에 말하면 바꿔줍니다. 그리고 기숙사 퇴실할 때는 청소를 열심히 하고 검사를 통과해야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냉장고, 화장실 청소 핫팅)

대만생활(대만 도착 이후)

유심칩 구입

송산공항에서 5000NTD를 주고 6개월 유심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기숙사에 도착해보니 절반가격에 유심을 구입할 수 있었다... 기숙사에서 유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매주 목요일 아침 8시에 기숙사 주변에서 학교에서 수거한 중고자전거를 600NTD에 판매합니다. 하루에 한정된 개수만 팔고, 선착순으로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 가야 좋은 자전거를 살 수 있습니다. 제 친구를 새벽 5시 30분부터 줄을 서서 좋은 자전거를 얻었고, 저는 7시부터 줄을 서서 자전거를 샀는데 자전거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났습니다. 제 친구는 교환학생 끝날 때까지 잘 탔고, 저는 자전거 얼마 못타고 고장 나서 버렸습니다. 하루만 희생해서 좋은 자전거 얻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학교근처가 전부 평지여서 자전거 타기 아주 좋습니다. 자전거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U-bike라고 서울시의 따릉이와 비슷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학교 수업

저는 총 10학점을 수강하였습니다.

Advanced heat&mass transfer(3학점 전공)

이미 듣지 않은 수업을 선택해야 했고 영강을 들어야만 했기에 대학원 전공수업을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배운 열 및 물질 전달을 조금 더 확장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General Chinese Language Course(3학점)

Chinese Enhancing Course (1학점)

2가지 수업 모두 중국어 수업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pinyin 정도만 배우고 갔기에, 레벨 테스트를 따로 보지 않았고 그 결과 제일 낮은 반에 배치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양인들과

같이 수업을 듣게 됐고 서양인들은 한자를 난생 처음 보는 거라 중국어를 배우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반의 진도는 한국인에게는 정말 느립니다. 한국인들은 기초적인 한자를 알기 때문에 서양인들보다 배우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중국어를 가서 처음 배운다고 하더라도 제일 낮은 elementary 1 보다는 elementary 1+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레벨 테스트를 보지 않더라도, 첫 주에 선생님께 말씀 드리면 레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elementary 1에서 계속 수업을 들은 결과 그 수업의 에이스가 되었습니다(서양친구들이 저를 부러워 했다는... 하지만 밖에 나가면 하수...) 중국어 수업 2 가지를 모두 수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ploring Taiwan- natural environment and resources(2 학점)

대만의 자연환경과 생물들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다. 대만의 암석, 새, 파충류, 뱀, 음식, 양서류 등등에 대해 배웠다. 사실 별로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다보니 그다지 재밌는 없었지만 이 수업은 교환학생을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다 모여 있다. 수업은 영강으로 진행된다. 들을게 없다면 이 수업이라도 들으시기를..

Baseball-intermediate(1 학점)

야구수업이다. 대만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야구가 정말 인기 있는 스포츠이다. 야구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여기서 미국인과 일본인 친구를 만났는데 이들은 나의 Bestfriend가 되었다. 미국인 친구는 나와 같이 야구에 정말 관심이 많다 보니 많이 엄청 친해졌는데 매일 같이 다니다 보니 나의 영어실력은 나날이 발전해갔다. 일본인 친구는 고시엔까지 경험한 야구 엘리트였다. 다만 대만은 5~6월이 우기여서 비가 정말 많이 온다. 비오는 날은 야구수업을 못하고 실내수업을 했는데 비오는 날이 너무 많아서 아쉬웠다. 야구 이외에도 많은 스포츠 수업이 있으니 관심 있는 스포츠가 있으면 듣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놀란 것은 국립대만대학교에서는 많은 여학생들이 동아리에 들어가 스포츠를 즐겼다. 학교 농구장과 배구장에는 여학생 반 남학생 반이었다.

여행 및 생활

대만은 여행할 곳이 정말 많은 나라이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 정말 많다. 필자는 여행은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타이난 가오슝 예류지질공원 정도 가보았다. 예류지질공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기암괴석을 가지고 있으므로 강력 추천합니다. 학교 안 식당은 정말 싸다. '쯔주찬'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뷔페처럼 음식이 펼쳐져 있고 그릇에 먹을 음식만 담아서 무게만큼 가격을 지불하고 먹는 음식이다. 간편하고 정말 싸다. 학교 밖에서는 아침 11시 이전에는 식당들이 문을 열기 전이기 때문에 총짜빙이나 탄뽕 같은 것을 많이 사먹었다. 식당들이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가격이 저렴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밑반찬을 주는 곳이 거의 없어서 아쉬웠다. 밑반찬이 있어도 돈 주고 사먹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한식이 정말 그리워지는데 한식당은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다. 한국 삼겹살이 먹고 싶을 때는 시먼딩에 있는 마포갈매기를 추천합니다. 가격이 좀 있긴 하지만 고기를 무한으로 구워먹을 수 있다.

동아리

MLC(언어교환 동아리)

사실 필자는 여기 동아리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교환학생 같이 간 한주 덕분에 이 동아리원들과 친해졌고 특히 동아리 회장과도 친해져서 이 동아리의 친구들과 종종 놀았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이곳저곳 놀러가기도 하고 중국어, 영어 실력이 모두 늘 수 있는 기회입니다.

헬스장

학교 헬스장을 이용하면 한 학기 4만원 남짓의 돈으로 싸게 다닐 수 있지만 기구 대비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좀 기다리면서 운동해야 합니다. 공관역에도 World GYM이라는 사설헬스장이 있는데 여기는 월 4만원의 가격이기도 하지만 샤워시설 내에 온탕과 찜질방도 있고 헬스장도 2~5 층까지로 엄청 큼니다.

소감

세계 어디를 가나 비슷하겠지만 서양인들은 서양인들끼리 동양인은 동양인들끼리 노는 경향이 있다. 사실 그러한 경향이 크다. 그래도 중국어 수업에서 서양인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이 있는데, 영어를 연습하고 싶다면 수업에서 만난 외국인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놀러 다니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놀면서 하는 영어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야구수업에서 미국인 친구와 친해져서 영어가 엄청 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중국어도 배우고 일상생활하면서 중국어까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권이라 영어가 늘지 않을까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교환학생은 교환학생들끼리 주로 놀게 되고, 세계각지에서 국립대만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오기 때문에 영어 정말 많이 늘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대만으로 교환학생 다녀온 것이 큰 행운이고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교환학생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js9322@snu.ac.kr 메일주세요.